

주간 경제지표 리포트 26.08.26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지난주 한눈에

지난주는 미국 경제가 물가와 성장 모두에서 여전히 힘이 세다는 걸 재확인한 한 주였다. 동시에 한국 채권시장과 금값에서는 눈에 띄는 방향 전환이 나타나, 지표 발표 뒤로 신용시장과 증시의 신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견조, 다만 균열의 조짐

미국 서비스업 PMI(구매관리자지수, 경기 체감 온도계)는 56.8로 예상(54.0)을 크게 웃돌아 서비스 경기의 탄탄함을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20만 6천 건으로 낮은 수준을 지켰다. 다만 4주 이동평균은 소폭 올라, 저위 구간 안에서 방향이 위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8월 25일 하루로는 S&P500이 0.3%, 나스닥이 0.8% 밀리고 VIX(시장 공포지수)는 4.8% 뛰었는데, 이번 주 전체로는 VIX가 11.2% 올랐다. 그런데 하이일드 회사채 가산금리(HY OAS, 기업 빚 부담 지표)는 오히려 5bp 낮아져 증시와 신용시장 신호가 다시 갈라졌다.

한국 금리차 다시 좁혀지고, 금은 홀로 뒤흔들

한국 국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차는 이번 주 2.7bp(1bp=0.01%포인트) 줄어 장단기 금리차 벌어짐이 잠시 주춤했지만, 2년물 금리는 이번 주 7.4bp나 올라 단기 자금 압박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다. 코스피는 이번 주 4.0% 내렸다. 금값은 이번 주 6.8% 오르며 뚜렷이 가속했고, 국제유가(WTI)는 최근 모멘텀이 꺾여 원자재 간 온도차가 커졌는데 둘 다 뚜렷한 뉴스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은 기준금리(LPR)를 8개월째 동결했고 은행 간 단기금리도 정책금리에 밀착해 있어, 최근 성장지표 둔화는 돈줄이 말라서라기보다 가계·부동산 쪽 수요 부진 탓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자금 흐름을 보면 채권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원자재 펀드로는 뭉치돈(유입비중 60.7%)이 몰려, 실물자산 쪽으로 방향을 트는 흐름도 감지된다.

다음주 꼭 볼 것

8월 26일에는 Fed가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E(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비 3.3% 전망)와 미국 2분기 GDP 2차 잠정치(1.5% 전망)가 함께 나온다. 매파로 기운 최근 Fed 분위기(연방기금선물이 반영하는 9월 동결 확률 53%, 인상 확률 47%)를 뒷받침할지가 관건이다.

8월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25bp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만장일치 인상과 "인상기조 지속" 예고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시점이다.

지난주 발표 지표 리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19	유로존	소비자물가(CPI, 확정)	0.2 2.9	-0.1 2.9	0.2 2.9	전월비 % 전년비 %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 확정치: 헤드라인 2.9%, 상승의 진원지는 에너지 [심층]
08/19	일본	무역·수출입	- 680.0	- 406.9	-634.5	십억엔	일본의 2026년 7월 무역통계 속보치는 수출이 전년 대비 23.2%, 수입이 2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화려한 숫자의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엔화 약세와 에너지·부품 단가 상승이 만들어낸 명목상의 팽창이다. 실제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5.2% 늘어난 데 그쳤고 수입은 사실상 보험인 1.2% 증가에 머물렀다. 무역수지는 6,345 억엔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요가 약해져서라기보다는 가격과 환율이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 [심층]
08/19	영국	서비스 소비자물가	0.5 3.4	0.5 3.6	0.6 3.4	전월비 % 전년비 %	서비스 CPI 전월비 0.6%로 예상(0.5%)을 웃돌았으나 전년비는 3.4%로 예상 부합, 둔화 추세는 유지.
08/19	영국	소비자물가(CPI)	0.3 2.9	0.1 2.6	0.3 2.9	전월비 % 전년비 %	CPI 전월비 0.3%·전년비 2.9% 모두 예상 부합했으나 전년비가 전월 2.6%에서 재가속, BOE 매파 경계 여전.
08/20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25.0	41.4	47.4	p	8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엠파이어 스테이트 서베이)는 헤드라인 20.6으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하우스가 참고하는 7월치 15.6과 비교하면 상당폭 개선됐다. 다만 세부를 뜯어보면 이번 달 강세를 이끈 힘의 상당 부분이 순수한 수요 확대가 아니라 물류 지연과 투입비용 상승 같은 공급 측 부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기업이 매기는 원자재·부품 가격 지수가 다시 뛰어올라 물가 압력을 걱정하는 지금 국면에서는 이 지표를 단순한 호재로만 읽기는 어렵다. [심층]
08/20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10.0	209.0	206.0	천명	8월 15일로 끝난 주간 기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줄었지만, 더 신뢰할 만한 지표인 4주 이동평균은 19만 9,750 건에서 20만 4천 건으로 오히려 4,250 건 올라섰다. 총량 자체는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저위 구간에 머물러 있으나 방향은 소폭 위쪽으로 꺾여, 이번 주 발표는 '저위 구간 안에서의 완만한 상방 압력'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심층]
08/20	중국	기준금리 결정	—	3.0	3.0	%	기준금리(1년 LPR) 3.0%로 8개월째 동결, 이미 예견된 결과로 서프라이즈 요인은 아니다.
08/20	일본	소비자물가(CPI, 종합)	—	1.7	1.9	전년비 %	7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종합 1.9%, 코어 1.8%, 코어코어 1.9%로 석 달 만에 나란히 올랐다. 방향은 분명히 물가 가속이지만, 상승폭의 3분의 2 가량이 신선식품과 에너지처럼 기초 체력 판단에서 걸러내야 하는 항목에서 나온 만큼 내용의 질은 높지 않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가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는 이번 지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판단을 유보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심층]
08/20	일본	소비자물가(CPI, 신선식품 제외)	1.8	1.6	1.8	전년비 %	근원 CPI(신선식품 제외) 전년비 1.8%로 예상 부합, 전월 1.6%에서 재가속해 BOJ 매파 기초 뒷받침.
08/21	미국	서비스업 PMI(S&P) 속보	54.0	54.6	56.8	p	서비스업 PMI 56.8로 예상(54.0)을 큰 폭 상회, 미 서비스 경기 견조함을 재확인.
08/21	미국	제조업 PMI(S&P) 속보	53.9	53.9	53.2	p	제조업 PMI 53.2로 예상(53.9)을 소폭 하회했으나 확장 국면(50 상회)은 유지.
08/21	미국	종합 PMI(S&P) 속보	—	54.5	56.0	p	종합 PMI 56.0, 서비스업 강세가 제조업 부진을 상쇄하며 확장세를 견인.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21	독일	제조업 PMI 속보	52.0	52.2	54.1	p	제조업 PMI 54.1 로 예상(52.0)을 상회, 독일 제조업 반등 신호 강화.
08/21	프랑스	INSEE 제조업 기업경기	101.0	101.0	103.0	p	INSEE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103.0 으로 예상(101.0)을 상회, 프랑스 제조업 심리 개선.
08/21	독일	서비스업 PMI 속보	50.1	49.8	48.5	p	서비스업 PMI 48.5 로 예상(50.1)을 하회하며 위축권 진입, 독일 서비스 경기 둔화 신호.
08/21	프랑스	제조업 PMI 속보	50.0	49.8	51.5	p	제조업 PMI 51.5 로 예상(50.0)을 상회, 프랑스 제조업도 확장권 복귀.
08/21	일본	종합 PMI 속보	—	52.7	53.4	p	종합 PMI 53.4, 확장권에서 견조한 흐름 지속.
08/21	일본	서비스업 PMI 속보	—	51.2	52.3	p	서비스업 PMI 52.3, 확장권 유지.
08/21	일본	제조업 PMI 속보	—	54.5	55.1	p	제조업 PMI 55.1, 확장 속도가 서비스업보다 빠른 점이 특징.
08/21	한국	생산자물가(PPI)	—	—	8.6	%	7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내려 6 월의 포함(0.0%)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6 년 들어 처음 나온 하락 전환으로, 직전 마이너스 기록은 2025 년 5 월(-0.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여전히 7.7% 높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0%로 헤드라인보다도 높다. 이번 하락 전환의 내용을 뜯어보면 원가 측(공산품)의 추가 완화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증권 위탁매매수수료라는 변동성 큰 항목과 정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력·가스 요금 하락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고, 이번 달 하락은 그 흐름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심층]
08/21	영국	서비스업 PMI 속보	51.8	52.1	52.8	p	서비스업 PMI 52.8 로 예상(51.8)을 상회, 영국 서비스 경기 개선세.
08/21	영국	종합 PMI 속보	51.6	52.2	52.5	p	종합 PMI 52.5 로 예상(51.6)을 상회, 서비스·제조 동반 개선이 반영.
08/21	영국	소매판매(연료 제외)	-0.5 3.3	1.1 5.4	-0.9 2.3	전월비 % 전년비 %	소매판매(연료 제외) 전월비 -0.9%·전년비 2.3%로 예상(-0.5%/3.3%)을 모두 하회, 소비 모멘텀 뚜렷한 둔화.
08/21	영국	소매판매	-0.5 2.2	1.0 4.2	-0.5 1.6	전월비 % 전년비 %	소매판매 전월비 -0.5%는 예상 부합했으나 전년비 1.6%는 예상(2.2%)을 하회, 전월 4.2%에서 큰 폭 둔화.
08/21	영국	제조업 PMI 속보	51.5	51.9	51.5	p	제조업 PMI 51.5 로 예상치 정확히 부합, 완만한 확장세 지속.
08/24	일본	임금	—	—	4	%	일본 6 월 매월근로통계 확보치에서 명목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4.0%로 속보치 3.4%에서 큰 폭 상향됐고 실질임금도 2.2~2.3%로 개선됐지만, 이 가속의 절반 이상은 여름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효과다. 임금의 기초를 보여주는 소정내급여(기본급 성격의 정기임금)는 계열에 따라 3.0%에서 3.5% 사이에서 완만하게 가속하고 있어,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소폭 강화하는 수준에 그친다. [심층]
08/25	미국	주택지표	—	1.443	1.433		미국 7 월 신규주택 판매, 헤드라인은 줄었지만 통계적으로 확정된 감소는 아니다 [심층]
08/25	독일	Ifo 기업환경	87.1	86.6	88.8	p	Ifo 기업환경경기지수 88.8 로 예상(87.1)을 상회, 독일 기업 심리 개선.
08/25	독일	GDP(수정)	0.2 0.9	0.2 0.9	0.3 1.0	전기비 % 전년비 %	GDP(수정) 전기비 0.3%·전년비 1.0%로 예상(0.2%/0.9%)을 모두 상회, 성장세가 소폭 상향 조정.
08/25	일본	경기선행지수(변화폭)	—	0.0	0.0	p	경기선행지수 변화폭 0.0p 로 포함, 뚜렷한 방향성 신호는 없음.

다음주 발표 예정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련포인트
08/26	미국	PCE 물가	0.1 3.6	-0.1 3.7	전월비 % 전년비 %	PCE 전월비 0.1%(전월 -0.1%)·전년비 3.6%(전월 3.7%) 전망, 헤드라인 둔화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08/26	미국	근원 PCE 물가	0.2 3.3	0.1 3.3	전월비 % 전년비 %	근원 PCE 는 전월비 0.2%(전월 0.1%)·전년비 3.3%(전월과 동일)로 전망, Fed 매파 기조를 뒷받침할지 본다.
08/26	미국	내구재 주문	0.5	0.5	전월비 %	내구재 주문은 전월비 0.5%로 전월과 동일한 흐름 전망, 설비투자 모멘텀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08/26	미국	GDP(2 차 잠정)	1.5	1.5	전기비 %	GDP 2 차 잠정치는 전기비 1.5%로 속보치와 동일 전망, 강한 확장(Strong-Expansion) 판단과의 부합 여부가 관건이다.
08/27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9.0	206.0	천명	신규 실업수당청구는 209.0 천명으로 전주 206.0 천명보다 소폭 증가 전망, 노동시장 냉각 신호 여부를 점검한다.
08/27	프랑스	실업자 수(A 등급)	—	3121.5	천명	프랑스 A 등급 실업자 수는 전월 3121.5 천명 기저 대비 방향을, 전망치 없이 실측으로 확인한다.
08/27	프랑스	생산자물가(PPI)	— —	-0.6 2.6	전월비 % 전년비 %	프랑스 PPI 는 전월비 -0.6%·전년비 2.6%였던 전월 기저 대비 방향 전환 여부를,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8/27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CPI, 총합)	—	2.0	전년비 %	도쿄 CPI 총합은 전년비 2.0%였던 전월 기저 대비 방향을, 전망치 없이 실측으로 확인한다.
08/27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CPI, 신선식품 제외)	1.7	1.9	전년비 %	도쿄 CPI 신선식품 제외는 전년비 1.7%로 전월 1.9%에서 둔화 전망, BOJ 물가 상방 서사와의 괴리 여부를 본다.
08/27	일본	유효구인배율	1.19	1.18	배	일본 유효구인배율은 1.19 배로 전월 1.18 배 대비 소폭 개선 전망, 고용 타이트니스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08/27	일본	실업률	2.5	2.5	%	일본 실업률은 2.5%로 전월과 동일 전망, 완전고용 기조 지속 여부를 점검한다.
08/27	한국	기준금리 결정	3.0	2.75	%	BOK 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25bp 인상 전망, 7 월 만장일치 결집과 '인상기조 지속' 가이드언스의 실행 여부가 핵심이다.
08/28	미국	소비자심리(미시간대)	51.0	51.0	p	미시간대 소비자심리는 51.0 으로 전월과 동일 전망, 낮은 레벨에서의 바닥 다지기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8/28	독일	실업자 수 변동	7.0	6.0	천명	독일 실업자 수는 7.0 천명 증가로 전월 6.0 천명 증가보다 확대 전망, 노동시장 둔화 속도를 가늠한다.
08/28	독일	실업률	6.4	6.4	%	독일 실업률은 6.4%로 전월과 동일 전망, 실업자 증가에도 비울 자체는 안정권 유지 여부를 본다.
08/28	프랑스	소비자물가(CPI, 속보)	— —	0.6 2.1	전월비 % 전년비 %	프랑스 CPI 속보치는 전월비 0.6%·전년비 2.1%였던 전월 기저 대비 방향을,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8/28	프랑스	소비자물가(HICP, 속보)	— —	0.6 2.4	전월비 % 전년비 %	프랑스 HICP 속보치는 전월비 0.6%·전년비 2.4%였던 전월 기저 대비 방향을,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8/28	프랑스	GDP(확정)	0.2	0.2	전기비 %	프랑스 GDP 확정치는 전기비 0.2%로 잠정치와 동일 전망, 하향 수정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08/30	일본	산업생산	—	1.9	전월비 %	일본 산업생산은 전월비 1.9%였던 전월 기저 대비 방향 전환 여부를,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8/30	일본	대형소매점 판매	—	-1.0	전년비 %	일본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비 -1.0%였던 전월 기저 대비 개선 여부를,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8/30	한국	소매판매	—	2.7	전월비 %	한국 소매판매는 전월비 2.7%였던 전월 기저 대비 반락 여부를,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8/30	한국	산업생산	—	5.8	전년비 %	한국 산업생산은 전년비 5.8%였던 전월 기저 대비 둔화 여부를,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8/31	중국	제조업 PMI(NBS)	—	49.2	p	중국 NBS 제조업 PMI 는 전월 49.2 로 기준선 50 하회 가 지속됐던 만큼, 이번에도 위축권 탈피 여부가 관건이다.
09/01	미국	제조업 PMI(ISM)	55.3	55.6	p	미국 ISM 제조업 PMI 는 55.3 으로 전월 55.6 에서 소폭 둔화 전망, 확장 국면 자체는 유지되는지를 본다.
09/01	미국	제조업 PMI(S&P) 확정	53.2	53.2	p	S&P 제조업 PMI 확정치는 53.2 로 잠정치와 동일 전망, 속보 수치 대비 수정 여부만 확인한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9/01	프랑스	제조업 PMI 확정	51.5	51.5	p	확률가중: EUR/USD 약보합 편향(확률상 Miss·Inline 합산 비중 높음), Bund 10Y 중립~소폭 하방 · 관전포인트: EUR/USD 1.1650 / Bund 10Y 2.60% [시나리오]
09/01	중국	제조업 PMI(Caixin)	—	50.9	p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는 전월 50.9 였던 기저 대비 방향을, 전망치 없이 실측으로 확인하며 NBS 와의 괴리 여부를 본다.
09/01	일본	제조업 PMI 확정	55.1	55.1	p	확률가중: USD/JPY 제조업 속보와 방향 일치 시 변동성 증폭, 상중 시 상쇄 · 관전포인트: 기업활동지수 50.0 (확장/위축 분기점) [시나리오]
09/01	일본	본원통화	—	- 13.87	전년비 %	일본 본원통화는 전년비 -13.87%였던 전월의 큰 폭 감소가 이어지는지를, 전망치 없이 확인한다.
09/01	한국	제조업 PMI	—	53.1	p	한국 제조업 PMI 는 전월 53.1 이었던 확장권 유지 여부를, 전망치 없이 실측으로 확인한다.
09/01	한국	소비자물가(CPI)	— —	-0.2 2.8	전월비 % 전년비 %	한국 CPI 는 전월비 -0.2%·전년비 2.8%였던 전월 기저 대비 방향을 확인, BOK 인상 결정 이후 첫 물가지표로 후속 확인 성격이 크다.
09/01	영국	주택가격(Nationwide)	0.1 2.0	0.1 1.8	전월비 % 전년비 %	영국 네이션와이드 주택가격은 전월비 0.1%·전년비 2.0%로 전월(0.1%·1.8%) 대비 완만한 개선 전망이다.
09/01	영국	제조업 PMI	—	51.5	p	영국 제조업 PMI 는 전월 51.5 였던 확장권 유지 여부를, 전망치 없이 실측으로 확인한다.

자료: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